

취업자 늘었다지만... '주 36시간 미만'이 주도 속빈강정

10월 대구·경북 고용동향
 대구 고용률 59% 전년비 1.3%p ↑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5% 줄어
 경북 월 취업자 145만명 0.8% ↑
 고용률 전년비 0.8%p 상승 63%



2021 노원구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등나무리근공원에서 구직자가 참여기업 리스트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대구·경북의 10월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상승을 주도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는 12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만8000명(2.4%) 늘었다. 남자는 1만명(1.4%), 여자도 1만9000명(3.6%) 각각 증가했다.

중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임금근로자는 94만8000명으로 5만4000명(6%)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28만5000명으로 2만5000명(8.1%)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7만

4000명으로 4만8000명(7.7%), 임시근로자는 21만4000명으로 1만1000명(5.3%)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6만명으로 6000명(8.7%) 감소했다.

고용률은 59%로 전년동월에 비해 1.3% 포인트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69%로 0.9% 포인트, 여자 49.6%로 1.6% 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3%로 전년 동월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3만9000명으로 16만5000명(60.5%) 증가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77만7000명으로 13만9000명(15.2%) 감소했다. 1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6.9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2시간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2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1000명(42.9%) 감소했다. 남자는 1만6000명으로 1만3000명(45.3%), 여자는 1만2000명으로

8000명(39.1%) 각각 줄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에 비해 1.7% 포인트 하락했다. 남자는 2.2%로 1.8% 포인트, 여자는 2.2%로 1.6% 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경북의 지난달 취업자는 14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000명(0.8%) 증가했다. 남자는 4000명(0.4%), 여자도 9000명(1.4%) 각각 늘었다.

고용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0.8% 포인트 상승한 62.8%로 조사됐다. 남자는 72.9%로 0.5% 포인트, 여자는 52.7%로 1.1% 포인트 각각 올랐다.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동월보다 0.1% 포인트 내린 66.9%로 집계됐다.

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전년 동월에 비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1만3000명으로 14만1000명(51.5%) 증가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02만6000명으로 11만8000명(10.3%) 감소했다. 1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9.1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1.4시간 감소했다.

경북의 임금근로자는 90만1000명

로 동일했고, 비임금근로자는 54만9000명으로 1만2000명(2.3%) 각각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3만명으로 5000명(0.8%), 임시근로자는 20만7000명으로 2000명(0.9%)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는 6만3000명으로 6000명(11%) 증가했다.

경북의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1.7%로 조사됐다. 남자는 1.9%로 1.4% 포인트, 여자도 1.5%로 2.1% 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의 실업자 수는 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만6000명(51.1%) 감소했다. 남자 실업자는 1만6000명으로 1만3000명(45%), 여자도 9000명으로 1만3000명(59.3%) 각각 줄었다.

고용동향은 대구시 1800여 가구와 경상북도 2200여 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한 주간의 경제 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경제 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

“평화광장에서 ‘목포해상W쇼’ 관람하세요”

12~13일 저녁 8시부터 공연 진행
 뮤지컬·불꽃쇼 등 유튜브 생중계



목포해상W쇼 /목포시

목포 평화광장에서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목포해상W쇼'가 펼쳐진다. 목포해상W쇼는 오는 12~13일 각각 저녁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화려한 위용을 뽐내는 공연을 선보인다.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붐업(Boom up) 공연이 매 회 다양한 내용으로 20분 동안 펼쳐진 뒤 8시 20분부터 목포해상W쇼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유튜브 채널 '목포해상W쇼'에서도 실시간 생중계한다.

목포해상W쇼는 지난 5~6일 첫 공연

됐고, 인근 상가에는 매출 증대의 마중물이 됐다.

목포해상W쇼는 가족의 시선에서 바라본 목포의 이야기를 '목포의 눈물'을 비롯한 지역 상징 노래와 창작곡, 기성곡 등으로 스토리텔링한 창작뮤지컬 공연에 맞춰 춤추는 바다분수쇼와 불꽃전 문טיפ이 연출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불꽃쇼로 구성된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공연이다.

W가 분수모양을 연상시키는 점에 착안해 명명된 W쇼는 물(Water)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World), 멋진(Wonderful) 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도, 모터스포츠 가상체험시설 구축

자동차경주장 활성화 콘텐츠 확장

전남도는 차별화된 체험공간과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터스포츠 가상체험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경주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문화공간 구축에 들어간 전남도는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네트어드벤처, 쥘와이어, 인라인스케이트장, 키즈 드라이빙

장, 발물놀이터, 드론연습장, 클래식 전가카트 등 자동차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운영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 초 증축을 마친 국제자동차경주장 카트장 2층에 24석 규모 시뮬레이터 모션 체험영상관을 비롯해 카레이싱 시뮬레이터 기구 등 총 6종류의 장비 42대와 35개 이상의 콘텐츠를 구축한다. 내·외부 인터리어도 레이싱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차용해 국제자동차경주장 위치에 걸맞은 스틸만점의 가상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해외 홍보대사 93명 선발 '경북도 마케팅'

현지 5개국 홍보사무소 운영
 태국·일본·대만 등서 SNS 홍보

경북도가 해외 현지 홍보사무소와 SNS 경북관광 홍보단 운영 등 해외 관광 홍보 마케팅을 벌이자 외국인들의 반응이 뜨겁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5~8월 해외 5개국 현지 홍보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관심 있는 현지 한류 팬, 재한유학생 등 총 93명이 선발돼 현재 경북관광 홍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태국 20명, 일본 25명, 대만 20명, 재한중국인 20명, 베트남 재한 유학생 8명 등이다.

중국 SNS홍보단은 틱톡으로 경북 문화관광 틱톡챌린지 링크를 개인 SNS에 공유하고 있다.

대만 SNS홍보단은 경주 첨성대, 안동 하회마을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와의

TBC 예능 프로그램 '바라던 바다' 포항 편 및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를 개인 SNS에 알리고 있다.

태국 SNS홍보단은 홍보단 경진대회에 참여해 좋아하는 지역 관광지와의 이유 소개해 콘텐츠 노출 3만3345회와 '좋아요' 2436건의 성과를 냈다.

베트남 SNS홍보단은 경주, 포항, 안동의 관광지를 안내·설명하는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 SNS홍보단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박람회 참가, 상시 경북관광 홍보 등을 하는 해외 현지 홍보사무소를 지난해 2개국(대만, 일본)에서 올해 5개국(중국, 대만, 일본, 태국, 베트남)으로 확대해 온·오프라인 투트랙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합격 명소’ 문경새재서 수능 합격기운 받아요”

최근 수능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 합격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문경새재를 찾고 있다.

문경(聞慶)은 '들음문' '경사경'이란 지명에서 나타나듯 예로부터 합격을 기원하며 한양을 오가던 영남지역 선비들이 가장 선호하던 합격 명소로 전통이 깊다.

지난해 '문경새재 합격의 길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첫선을 보인 이 행사에는 합격을 기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합격기원패'를 걸며 소원을 빌었다. 제2회를 맞는 올해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합격의 길 미션 레이스'라는 주제로 문경새재도립공원 입구부터 조령원터, 주막에 이르기까지 문경새재 주요 공간을 무대삼아 행사가 펼쳐진다.

/경북(문경)=김태우 기자

화순군, 먹기 편한 꼬마기정떡 개발·출시

화순기정떡이 먹기 편한 '꼬마기정떡'을 개발, 출시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1년 소비자 맞춤형 기정떡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꼬마기정떡 개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팔 양금 꼬마기정떡과 치즈 양금 꼬마기정떡으로 향토음식인 기정떡의 품질 고급화와 제품 다양화를 위해 개발한 상품이다.

기존 사각형태의 기정떡에서 벗어나 먹기 편한 타원형 모양의 한입 크기와 양금 다양화로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소비자 확대가 기대된다.

상품 출시와 함께 특별한 날에만 먹는 떡이 아닌 건강하고 간편한 아침 식사 대용, 다이어트 소비층을 위한 저칼로리 간식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화순(전남)=김태우 기자 ts7080@

광주 행정공무원 '특근비 허위수령' 조사착수

광주 서구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야간 근무 기록을 허위로 조작, 1년에 걸쳐 공금 1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의혹이 불거졌다.

1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화정 2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최근 1년 여에 걸쳐 야근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특근비(급양비·저녁 식사비) 1000여만 원을 허위로 빼돌린 의혹을 사고 있다.

일과이후 1시간 이상 야간 근무를 해야 특근비 수령 대상이 되는데, 근무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을 확인한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전남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금액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태우 기자 ts7080@